

발화지점·원인 미스터리

# 전문가 15명 감식 불구 발화점도 못찾아

### 목격자들 "50대 남자 승례문 올라간 뒤 불꽃" "1~2분내 지붕속 적심에 불 지르기 힘들어"

국보 1호 승례문이 11일 새벽 소실된 가운데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이 미스터리다. 특히 현장 목격자들은 방화 용의자가 승례문에 올라간 지 1~2분만에 불길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을 2층 지붕 안쪽이라고 보고 있어 정확한 '방화' 경위를 캐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서울 남대문경찰서 과학수사팀, 소방방재청, 서울시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명은 11일 정오쯤부터 1시간30여분 뒤 1차 감식을 마쳤다.

11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승례문 화재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관독결과 이날 화재는 승례문 2층 좌측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은 결론내지 못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은 기둥이나 벽면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붙게 된다"며 "지붕속 '적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낮으며 밑에서 올라간 불길이 적심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재진압 직후 소방당국은 "승례문 기와 밑 강화다짐과 회벽바름 사이에 있는 적심에서 불이 발생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발화 지점까지 물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발화지점을 적심으로 변경, 지목했다. 관할 중부소방서에서는 승례문

'화재상황보고서'에서 발화 지점을 '적심'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화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말을 바꾸기도 해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화재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이번 화재가 방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를 신고한 택시기사 이모(44)씨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쇼퍼백을 들고 승례문에 올라간 지 1~2분이 지나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장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누전이나 방화나, 실화나를 놓고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은 감식 등 과학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발화 지점이 적심이고 목격자의 '방화 가능성' 진술에 근거하면 불과 1~2분만에 지붕속 적심에 불을 지르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고건축박물관 전문수 관장은 "단청에 시너같은 발화물질을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는 가능하지만 적심까지 올라가서 불을 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11일 화마로 쓰러진 국보 1호 승례문 앞에 시민들이 놓은 국화꽃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는 지난 2006년 3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당시 모습. /연합뉴스

## “승례문 원형대로 복원”

문화재청, 3년내 가능... 200억 소요 예상

정부는 11일 승례문 화재사건과 관련, 전소된 승례문을 최대한 빨리 원형대로 복원하는 한편, 주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 및 진압대책을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재청도 이날 '승례문 복구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승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이상민 차장은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해 '승례문 복구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2006년 제작한 정밀실측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하고, 1960년대 초 발간된 승례문 수리보고서를 참고로 해 승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나 감식 등이 끝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복원을 시작하겠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복원작업은 3년가량 걸릴 예정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현장확인조사 등 자

문위원회 결과와 자문을 받아 결정하며 ▲복원시에는 일본감정기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함께 복원하고 ▲문화재 위원,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의 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또 "승례문과 동대문은 모두 한식구조로 지어져 있어 적심에 불이 붙으면 외부에서 진화하기 어렵다"며 "동대문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진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소방당국에 '승례문이 중요문화재인 만큼 진화작업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차장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뒤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하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당국 "손실되지 않게 진화요청 받았다" 문화재청 "누각 지붕 해체 조기 통보했다"

### ■ 초기 대응 실패 책임 공방

국보 1호 '승례문' 화재 사건과 관련,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사이에서 미묘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승례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10일 밤 9시10분께로 승례문 누각에서 불꽃과 연기가 일기 시작한 시각인 오후 8시48분에서 20여분이 지난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실은 문화재청 한 직원이 방송뉴스를 통해 처음 접보했으며 문화재청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 오후 9시30분께 건축문화재과장과 문화재안전과장 등을 서울로 급파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는 화재 발생 40여분이 지난 뒤인 오후 9시25분께서야 전화로 통보(21시 40분 팩스 통보)받았던 것으로 문화재청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화재발생 10분여 뒤인 오후 8시59분 문화재청에 화재사실을 통보했고, 오후 9시35분께 문화재청으로부터 "화재진압이 우선이니 승례문의 일부를 파기해도 된다"는 협조를 얻어냈다는 소방당국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초기 대응 과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서울소방본부 측이 대전 문화재청과 진압방식을 논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불을 꺼달라'고 요청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진화 책임자가 상황을 판단, 결정하는 것이지만 문화재청과 일일이 상의해 진화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누각 지붕 해체도 문화재청에서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또 人災... 어김없는 관리 부실

### 야간 상주 직원 없고 관할구청 CCTV 의존

국보 1호를 잇아간 '승례문 화재사건'은 방화 문제와 관계없이 안이한 관리·감독이 낳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례문은 문화재보호법상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중구청 공원 녹지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현장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인경비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겨놓은 채 아예 승례문을 비

워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휴일의 경우 현장 근무자가 1명에 불과했고 평일에도 근무자가 3명이며 그나마 오후 6시 이후에는 1명만 남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제 화재가 휴일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해 당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어제 근무자는 규정대로 저녁 8시까지만 근무한 뒤 돌아갔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1999년 개방 이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도 출동 시간 이 걸리는 무인경비시스템에만 의존했다는 점이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 1962년 국보1호로 지정 임란, 호란, 6·25도 견뎌

### ■ 승례문 어떤 문화재

승례문은 지난 1962년 12월 국보 1호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문화재로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기도 하다.

승례문은 조선왕조가 한양 천도 후인 1395년(태조4년)에 한성 남쪽의 목멱산(木覓山·남산)의 성곽과 만나는 곳에 짓기 시작해 1398년(태조7년)에 완성됐으며 이후 600여년 동안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447년(세종29년)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0년대 초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을 통해 1479년(성종10년)에

도 한 차례의 대규모 보수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960년대 공사 당시에 제거했던 옛 목부재와 기와 등 350여점은 승례문 내에서 보관하다가 2005년 한국전통문화학교 부재 보관소로 옮겨 다행히 이번 화재 피해를 피했다.

승례문은 1907년 일제가 연결된 성곽을 허물고 도로를 내면서 대문에 둘러싸여 고립돼 있다가 2005년 5월 승례문 주변에 광장이 조성되고, 2006년 3월에는 100년 만에 중앙 출입문인 흥에문이 개방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600여년을 지켜온 승례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승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0215300-9999